

더는 불온하지 않은 책의 더없이 불온한 해설

글_ 신기섭 <한겨레> 논설위원

강유원 박사의 책을 평하는 건 '밀지는 장사'다. 그가 지난해 말에 낸 주제 서평집 《주제》에 실린 서평만큼 글을 쓰는 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칭찬만 늘어놨다면, 강유원과 그의 서평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욕먹기 딱 좋다. 그러니 아예 피해가는 게 상책이지만 그러질 못하고 말았다.

강유원은 무엇보다 글을 잘 읽는 사람이다. 서평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책의 힘도 《공산당선언》을 제대로 읽는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은 글을 읽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그의 방식은 어떤 글의 맥락을 철저하게 따지는 데서 시작한다. 저자의 사회적, 역사적 위치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고민, 이 고민이 사회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글로 표현되는 맥락을 본다.

그의 책 읽기는 '세상과 동떨어진 절대적인 텍스트'를 좀체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텍스트를 '지금 여기'의 나와 연결짓는다. 21세기 동아시아에 사는 철학박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책인가? 그가 책을 읽을 때 제기하는 주된 질문이다. 아니, 이것이 '그의 책 읽기'에 대해 내가 내린 정의다.

그에게 절대적인 텍스트는 딱 다섯 권뿐인 것 같다. 그는 《주제》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내가 보기에 세상에는 '책'이 몇 권 있다. 아니 다섯 권 있다. 《길가메시 서사시》, 《오디세이아》와 《오이디푸스 왕》, 《신곡》과 《정신현상학》." 그리고 책을 이렇게 정의한다. "책은 '자기'를 찾는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찾아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주어야 하며, 이러한 보여줌과 드러냄의 주체는 그러한 행위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인, 분열되어 있으면서도 통일된 자기여야 하고, 이 모든 것을 완결된 서술 구조 속에서 제시하여야만 하거니와, 이러한 것이 책이라면, 몇몇 다른 것들은 그것들에 대한 주석이거나 해설이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배긴 것일 따름이니..."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은 절대적인 텍스

트일 수 없겠는데, 이런 텍스트는 어떻게 읽는가? 실마리는 이 해설서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맨 앞에 마르크스의 생애와 사상이 나온다. 책 전체의 3분의 1 분량이다. 나머지가 《공산당선언》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책에서 강유원은 끊임없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노동자'에게 《공산당선언》은 무엇이나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의 답은 이렇다. "모든 책들이 회사원의 입장에서, 임금 노동자의 입장에서, 임금 노동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쓰인 것은 아니다. 책을 고를 때는 이 책이 과연 누구 좋으라고 쓴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니겠는가. 어떤 책을 읽더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 이익은 당장 연봉 올라가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아 사람답게 사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도 이익은 이익이다" (184쪽).

《공산당선언》을 이렇게 읽으니, '쓴 지 150년이 넘는, 더는 불온하지 않은 책'이 더없이 불온한 책이 되고 만다. 다만 이 불온함은 '건조함' 또는 '태연함'에 살짝 가려져 있다. 가령 이런 식이다. "부르주아지를 전복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바꾼다는 것을 말한다"고 해놓고는 "이걸 바꾸는 일이 수월하겠는가. 애써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태연하게' 부연한다(177쪽).

그는 "자본주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할 때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생각해보기로 하자" (171쪽)고도 한다. 그러나 그의 '거리두기' 때문에 이 기회가 그를 통해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국가가 가끔 던져주는 당근도 물리치는 게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는 대안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169쪽)는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비교적 잘 팔리고 있지만, '불온한 해설' 덕분에 팔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마도 강유원의 또 다른 강점 곧 명쾌하고 분명한 정리와 해설 덕분일 것이다. 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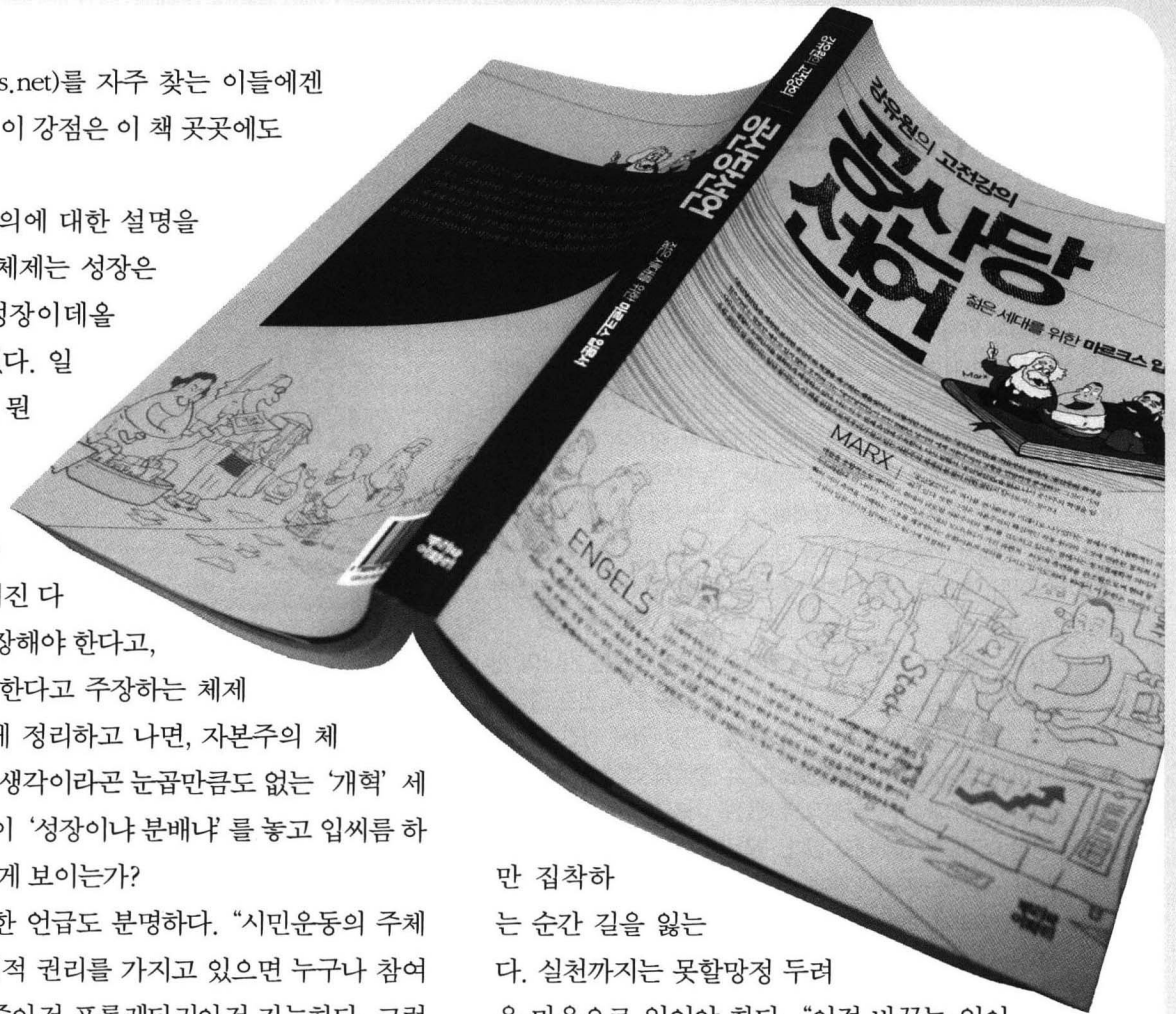
홈페이지(armarius.net)를 자주 찾는 이들에겐 익히 알려져 있는 이 장점은 이 책 곳곳에도 스며있다.

예컨대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보자. “자본주의 체제는 성장은 좋은 것이라는 성장이데올로기로 무장돼 있다. 일단 성장한 다음에 뭔가를 떠들어도 떠들지는 생각을 가진 체제다. 아 니,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또다시 성장해야 한다고, 영원히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체제다”(125쪽).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건드릴 생각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이 ‘성장이나 분배냐’를 놓고 입씨름하는 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가?

시민단체에 관한 언급도 분명하다. “시민운동의 주체는 시민이다.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르주아건 프롤레타리아건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시민운동 하는 단체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가진 시민 개념은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다. 삼성 재벌의 총수 이건희나 시간강사 강유원이나 모두 시민이다. 그러나 계급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희 시민과 강유원 시민은 분명히 갈라진다”(91쪽).

명쾌한 개념 규정을 바탕으로 분명히 의견을 표명하는 지식인이 요즘 얼마나 되는가? 철학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요즘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유목주의에 대해 어떤 철학 전공자는 이렇게 썼다. “왜 이 논쟁에 소위 노마디즘을 전공한 아카데미한 철학자들이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다. 소위 불란서 철학을 전공한 아카데미한 학자들이 나타나서 무엇이 노마디즘이고, 어떤 이의 저술은 어디가 틀렸고, 《천의 고원》이 실력도 안 된 대학생이 엉터리 번역을 했는지 말해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적어도 강유원은 ‘조용한 학자’ 들과는 다르다.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떠들’ 기회는 적지만 말이다. 그런데 확실한 정리와 명쾌한 해설은 이 책에서만큼은 뒷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마르크스, 유물사관 등에 대한 설명 부분에



만 집착하는 순간 길을 잃는다. 실천까지는 못할망정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이걸 바꾸는 일이 수월하겠는가. 애써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면, 《공산당선언》을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없다. 마르크스 말대로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실천을 고민할 때 강유원의 명쾌한 해설이 독자에게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